



대형마트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김장을 직접하겠다'는 가구 비중 전년보다 4.8% 증가

- 배추 가격은 하락세, 김장철 배추가격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전망
- 김장재료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부담 완화할 계획
- 도매가격, 김장의향조사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 주요 내용 >

10월 29일(화) 서울경제 「특판 끝나자 절임배추값 ‘쑥’...김장 포기 속출」 기사에서 “① 이달 1~25일 진행된 대형마트 절임배추 예약 시 20kg을 2만 원대 판매했으나, 3차 사전 예약 시 2배가량 오른 4만 원대로 판매, ② 배추 10kg의 전국 평균 도매가는 이달 25일 기준 1만 5,620원으로 평년 대비 62.3% 상승, ③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 의향 조사 결과 ‘김장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절임배추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산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대형마트의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예약판매하고 있는 절임배추는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A 대형마트 일반배추는 20kg당 26,800원(적립금 환급 포함)에 예약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와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대형마트의 경우 11월 이후 출하되는 해남산은 20kg당 29,900원에 예약판매하고 있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에 출하되는 평창산의 경우 59,900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절임배추 판매가격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종 및 산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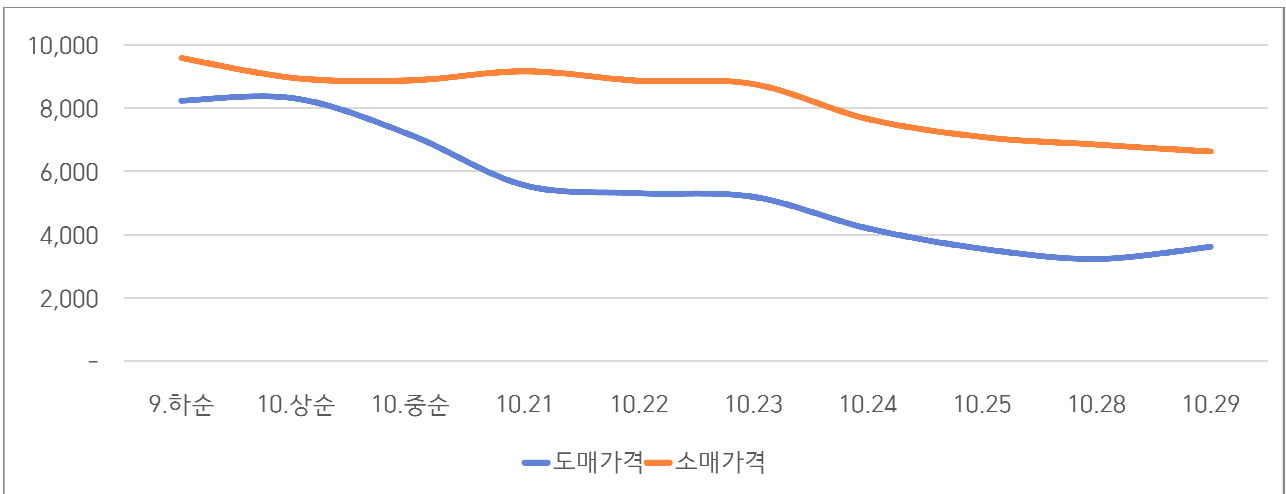
* 대형마트 절임배추 판매가 : ('23년) 1,695원/kg~3,499원 → ('24년) 1,490원~3,490원

② 배추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어 김장철 배추가격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들어 배추 생육에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농업인들의 생육 관리 노력과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져 가을배추 작황이 호전되면서 배추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상순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배추 1포기당 8,299원이었으나, 하순(10.21.~10.29. 평균)에는 포기당 4,290원으로 2배가량 낮아졌습니다. 향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어 김장철 배추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락시장 배추 도·소매 가격동향》



도매가격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의미합니다. 중도매인의 수수료 등이 포함된 ‘중도매인 판매가격’을 도매가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 배추가격 예시(10.28.) : (도매가격) 9,706원/10kg → (중도매인 판매가격) 13,660원/10kg

③ 김장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24 김장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장을 직접하겠다.’라는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8.1%로 4.8% 증가하였습니다.

배추 가격이 치솟자 김장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김장 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재료의 공급 여건을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재료인 배추·무 생육이 호전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는 더욱 안정될 전망이며, 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도 생산량 등으로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 및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배추) (수급)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배민식 (044-201-2232)
			서기관	김민호 (044-201-2681)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